

꿈이 익어 가는 방

송운초등학교도서관

도서관 소식지 제 2020-2 호 / 펴낸 일 : 2020. 5. 15. (금) / 펴낸 곳 : 송운초등학교 도서관
(<http://reading.gglec.go.kr/main.html>) / 펴낸 이: 교장 이상훈 꾸민 이: 사서교사 최선옥

책 읽는 기쁨, 읽어 주는 즐거움



◎ '책'이란 아이들이 누리는 수많은 문화 활동 중의 하나이며,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입니다.

◎ 책 읽기는 세상과의 소통입니다.

아이들은 마음으로 듣고 느끼며 책을 체험합니다. 그 느낌이 깊을수록 책 속의 언어와 그림의 세계가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체험이 쌓인 뒤 기억이 되살아날 때, 그 체험은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이해를 가져다줍니다.

함께 하는 책 읽기는 아이들과 책 읽어 주는 어른 간의 신비로운 교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문학적인 완성도가 높은 책을 읽어 줌으로써 문화와 예술적 토양이 아이의 가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.

다양한 책을 읽어 주려 애쓰기보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같은 책을 자주 읽어 주어도 좋습니다. 아이들은 익숙한 리듬을 즐기고 마음에 담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.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이야기도 잘하고 가슴도 따뜻합니다.

특히 그림책은 아이와 어른의 마음이 교류하는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

◎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

첫째, 좋은 책

둘째, 읽을 시간

셋째, 아이가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, 이해는 했는지 등 어른들이 간섭하지 않는 것

아이들이 책 읽기 자체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러면 아이들은 책 속에서 주인공과 한마음이 되어 울고 웃으며 사람다운 감성을 느끼고, 간접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.

그리고 이 모든 것과 아울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고, 책을 꾸준히 읽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아이들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깨우칠 때까지만 읽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.

◎ 왜 책을 읽어 주어야 할까요?

- 누군가 책을 읽어 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.
- 책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, 상상력, 집중력, 언어 표현력을 키워 줍니다.
-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언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
-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힘, 마음으로 느끼고 깊이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.
- 혼자 읽을 때는 내용을 이해하기 바쁘지만 읽어 주면 생생한 감동을 경험합니다.
- 책 읽어 주기는 아이와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

책 읽어주기 노하우

- ① 집이 아닌 곳에서도 읽어 줍니다. (공공도서관, 놀이터, 공원, 서점 등등)
- ② 이야기 한 편을 들려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읽어 줍니다.
- ③ 부모님이 즐겁게 읽은 책을 중심으로, 교훈과 주제가 앞서지 않게 읽어 줍니다.
- ④ 읽어 주기로 한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, 정성껏 읽어 줍니다.
- ⑤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, 그림책을 읽어 줄 때는 아이들이 그림을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하며 천천히 읽어 줍니다.
- ⑥ 부모님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므로, 변화무쌍한 아이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.
- ⑦ 아이가 자주 보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, 아이가 책을 읽으려 할 때 격려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.
- ⑧ 아이들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,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경우는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타일러야 합니다.
- ⑨ 책을 읽는 아이의 태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. 똑바로 앉지 않거나, 돌아다니거나, 누워 있다고 지적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.
- ⑩ 엄마가 읽어 주는 날, 아빠가 읽어 주는 날처럼 일정한 요일과 시간을 정했을 때는 한 사람이 그 시간을 모두 맡는 것이 좋습니다. 번갈아 가며 읽어 주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.
- ⑪ 독서 노트를 마련하여 책을 읽어 주고 난 후 읽어 준 책, 아이의 반응, 부모 자신의 생각 등을 적어두고 꺼내 보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.

- ⑫ 다른 부모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어린이 책을 함께 읽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. 책을 읽어 주고 얻는 보람과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[출처 : 독서교육]

경기 솔솔~독서바람송 「팔랑~」

유튜브 (<https://youtu.be/rCI-xFGjfTk>)



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
배포한 슬기로운 독서생활
을 위한 경기 솔솔~독서바
람송 「팔랑~」입니다.

[가사 내용 중 일부]

글자만 봐도 난 자꾸만 잠이 쏟아져.
숙제 중 제일 싫은 건 바로 독후감이고 눈치 주는
엄마 때문에 읽었지
...<중간 생략>...
hook)기분 좋게 누워 꿈나라 가기 전에 한 장,
게임 하다 잠깐 두 장,
맛있는 거 먹다 또 한 장, 기분 좋은 날에
두근거리는 소설 한 장,
짜릿한 추리물은 두 장, 따스한 위로 가득한 시집을
또 한 장
학교, 학원, 숙제, 공부 때문에 정신없는 하루
그럴 때 잠깐 책이나 한 장 꺼내 먹어 볼까 남남
월 좋아할지 몰라서 여기 다 준비했어. 뭐든지
괜찮아 책은 가볍게 보겠어.
시간이 없으면 딱 10분 20분, 너도 금방 알게 될
거야 이 기쁨.

※ 흥얼흥얼 듣다 보면 어느새 내 손안에 책이~~

※ 라임에 맞춰 책도 읽고, 나만의 가사로 바꿔 보세요!

☆ 코로나-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
등교 수업 전 학교도서관은 임시 휴관 중입니다.